은혜로 새벽묵상 (01/26/22)

찬송 :219장 (새 540장)

사도신경

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

비판하지 말라

<마태복음 7장 1절>

1. 오늘의 말씀

오늘부터 산상수훈의 세 번째 부분 7장을 시작합니다.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불편한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과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길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. 오늘은 비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.

*** 믿는 자에 대한 자세(1-2절)**

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의를 표준으로 외모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,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앞에서의 정당성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미움이 된다고 합니다.(눅 16:15).

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? 신앙생활을 할수록 많은 부분에 있어 판단력이 발달하고, 말씀을 깨닫고 기도생활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. 이런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설교말씀을 들을 때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‘누구가가 설교를 듣고 마음과 행동을 고쳐야하는데....’ 라고 생각하며 들을 수

있습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 받지 않기 않으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, 사실이고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 전체나 사실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, 죄 없는 우리 예수님만이 죄인 된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* 우리 자신에게 대한 자세(3-5절)

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요나가 니느웨의 티만 보았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비판 했습니다. 이처럼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.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비판하고 나의 모든 죄의 요소를 버리고 난 후에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.

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형제 안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우리는 남의 행동이나 자세는 분별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‘마음의 눈 수술’을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육의 눈이 감겨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.

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편한 이 말씀이 우리의 들보를 보고 빼는 ‘영적인 수술’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(빌 2:3-4)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

2. 오늘의 기도

-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
-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소서